

# 정부 예타에 지역낙후도 지수 재산정...균형발전 탄력

### 타당성 재조사 일반, 도로 철도 등 5개 지침 개정 쇄신안 발표 평가지표 항목도 보다 세분화

정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 발전 속도가 더딘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지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국 지자체의 지역낙후도 지수를 다시 산정한다. 정부의 예타가 인구규모와 경제성에 치중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정지

역에만 대규모 사업이 집중돼 국가 불균형 성장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광주일보 2020년 11월 30일~12월 3일)이 잇따르자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광주일보는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1년간 예타 및 예타면제사업 내역을 건네받아 전체 사업비 가운데 수도권에 35.04%, 영남권 26.50%, 호남권 14.67%, 충청권 14.04% 등이 배정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타 제도는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은 예타 조사에서 지역 균형발전 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평가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 산정에 있어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을 반

영하거나 예타 사업유형·특성에 따른 정확하고 구체적인 비용-편익도 산정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10개 표준지침 중 중요성이 크고 활용도가 높은 ▲예타 수행 일반 ▲타당성조사 일반 ▲CVM(조건부지급조사) 분석 ▲도로·철도 ▲문화·관광 등 5개 지침에 대해 우선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여건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인구, 경제, 기

반시설 등 8개 지표만을 활용하는 데 그쳐 지역 현실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입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시17, 기초167)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역낙후도지수 산정방식 개선으로 지역 여건이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신안 천일염 없어서 못 산다

### 생산량 줄고 日 오염수 방류 사재기 열풍에 가격 천정부지

생산량 급감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 등으로 사재기 열풍까지 일면서 천일염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격 폭락으로 올해 생산이 줄어든 데다 일찌감치 소금을 사 놓으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30일 신안군, 전남도 등에 따르면 2019년 20kg들이 한 포대에 2000원대, 지난해 5000원대였던 천일염값이 최근 1만7000~2만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다음주에는 3만원 선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해남의 한 절일 배추 업체 관계자는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천일염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값이 너무 오른데다가 생산자들이 상승 기대 심리로 팔지도 않고 있다"고 걱정했다.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신안의 경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생산량이 5만t에도 미

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생산량이 폭 떨어졌다. 지난해 생산량은 13만t으로 평년(23만t) 대비 10만t이 줄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신안군의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비가 오는 날이 상대적으로 많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그 원인으로 앞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고가 없는 데다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팔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일염 가격 상승이 반길 일이지만 지나친 가격 상승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영세 천일염 가공업체 등의 경영난도 예상된다. 신안 천일염전 면적 2600ha로 연간 생산액은 400억원 정도다. 신안 태평양 염전 관계자는 "구해달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겨우 10포대 정도밖에 남은 물량이 없어 팔 수가 없다"며 "다른 염전도 마찬가지여서 당분간 가격은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전남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평균보다 높다

### 광주 12.36% 전남 10.43% ↑ 전국 평균은 9.95% 올라

광주와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광주의 개별공시지가는 12.36% 상승해 전국 평균 9.95%보다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 13.61%, 남구 13.60%, 북구 11.65%, 서구 11.34%, 동구 10.43% 순이었다. 공시 대상은 37만7000여 필지이며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에 대한 특성 조사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열람, 의견 제출, 각 자치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광주 지역 최고 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맞은편 상업용 대지로 ㎡당 1590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광산구 왕동저수지 인근 임야로 ㎡당 841원이다. 전남은 나주, 장성, 담양 등 광주 인근의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전남도 총자산은 1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 전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보다 10.43%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52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별로 나주 15.57%, 장성 13.4%, 담양 12.22% 순으로 많이 올랐으며, 진도가 8.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상승 요인은 나주의 경우 영산동 등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영향을 받아 가장 높게 상승했다. 장성은 진원면 등 첨단3지구 개발 본격 착수 등으로, 담양은 담빛문화지구 조성으로 인접 실거래가 상승과 광주 연접지역 가격 균형 영향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지난해부터 최고 지가를 이어온 여수 학동 상가다.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4% 오른 1㎡당 438만 5000원으로 공시됐다. 최저 지가는 장흥 유치면 임야로 1㎡당 176원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난방공사 "나주SRF, 대기배출 법정 허용치 충족"

### 가동 결과 공개 주민 환경 우려 해소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30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이하 나주SRF) 본격 가동 이후 대기배출물질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한난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부터 5일간 발전설비를 가동한 결과, 먼지와 질소산화물, 연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대기배출물질 수치가 법정 허용치와 자체 기준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먼지는 평균 0.8㎎/㎡로 법정 허용치의 8%, 질소산화물은 15.1ppm으로 법정 허용치의 30% 수

준에 그쳤다. 연화수소와 일산화탄소 각각 2.5ppm과 7.2ppm으로 법정 허용치의 25%와 14% 수준에 그쳤다. 나주SRF는 앞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에 따라 지난해 시행한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에서도 대기질 등 6개 분야 66개 항목이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킨 바 있다. 한난은 지난달 15일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발전소 가동의 불가피성과 지역상생 의지를 글자로 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광주서 올해 e-스포츠 9개 대회 열린다

광주시는 "올해 조선대학교에 있는 광주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서 리그오브레전드(LOL), 배틀그라운드(PUBG), 카트라이더, 브롤스타즈 등 9개 대회가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다음 달 12~13일 리그오브레전드 공식 대회 LCK 아카데미 시리즈 챔피언십이 열린다. 이어 8~9월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선발전이 개최된다. 전국의 실력파 게이머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광주 e-스포츠 오픈대회가 6월, 8월, 11월 총 3회 진행

된다. 지역 게이머를 대상으로 PC 클럽 대항전, 호남권 대학 최강자전, 중·고등학교 e-스포츠 리그 등이 열린다. 각 대회 예선은 온라인으로, 본선부터는 경기장에서 진행하며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광주시는 참가 방법과 대회별 종목, 상금 규모 등 대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배터리 제조업체 등과 3200억 투자 협약 전남도는 지난 2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차전지 배터리 완성품 제조 등 2개 사업 3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체계 구축 토대를 마련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이병홍(주)엘씨엠에너지솔루션 회장, 이슬찬 대표이사, 귀스란 화유코발트 이사, 정창화(주)포스코 신성장부문장, 지우항(주)포스코에너지와이클린메탈 대표이사, 권오봉 여수시장, 정찬균 나주시 부시장,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최초로 일반용 이차전지 완제품 제조공장을 유치하고, 광양만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소재 분야 선순환 자금체계를 완성하게 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나주 혁신산단과 광양만권에 각각 들어설 2개 기업은 45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KT는 AI로 교통을 제어하는 C-ITS 서비스로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적의도로로 도시를 바꾼다

구급요원 아저씨, 감사합니다!

KT-C-ITS의 긴급차량우선순환 서비스는 빠른이동이 필수인 긴급차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현저하게 인공을 줄여줍니다. 제주도에서 긴급차량우선순환 서비스 도입을 위한 테스트는 이미 성공하였으며, 전국 보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1588-0114